

# 한-MERCOSUR FTA 체결의 효과분석

2005. 6

KOTRA 통상전략팀

# 목 차

<b>I. 한국-MERCOSUR 교역현황.....</b>	<b>3</b>
1. MERCOSUR 시장특성/3	
2. 대 MERCOSUR 국가별 수출입 현황/3	
3. 대 MERCOSUR 품목별 수출입 현황/5	
<b>II. MERCOSUR의 FTA 추진현황.....</b>	<b>7</b>
1. MERCOSUR 개황/7	
2. MERCOSUR의 FTA 추진동향 및 추진정책/11	
3. 한-MERCOSUR FTA 추진배경 및 향후일정/14	
<b>III. MERCOSUR 지역 관세현황.....</b>	<b>15</b>
1. 브라질의 관세율 현황/15	
2. 아르헨티나의 관세율 현황/18	
<b>IV. MERCOSUR 비관세장벽.....</b>	<b>26</b>
1. 수입규제 현황/26	
2. 비관세장벽 현황/27	
<b>V. 결론.....</b>	<b>29</b>

## 《 요약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는 남미공동시장(이하 MERCOSUR)은 중남미 전체면적의 71%, 인구 51%를 차지하며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중남미 최대의 경제 통합체로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신흥시장인 BRICs의 일원으로서 MERCOSUR와의 FTA 체결시 브라질을 남미시장의 교두보로 한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 MERCOSUR 교역은 중남미 지역 금융위기 이전인 '9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98-'99년 브라질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 추세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중이며,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수입 및 수출 모두 다른 MERCOSUR 회원국보다 월등히 많아 MERCOSUR의 중심국으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 MERCOSUR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전기, 화학, 기계, 섬유 등 제조업 생산품이 대부분이며, 농수산·광물, 철광제품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한편, MERCOSUR는 불완전한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으로 출범하여 완전한 관세동맹을 지향하고 있다. 품목의 95%를 역내 무관세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로 2004년 기준, 적용 품목 비중은 70%정도이며 자본재, 정보통신장비, 설탕 및 자동차, 개별국의 민감 품목, 중남미 국가들과의 특혜적용 품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정보통신제품과 일반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MERCOSUR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정보통신 제품, 전기전자 등 완제품의 경우 14-35%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첨단제품, 자본재 등의 경우 영세율 또는 저세율

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종 수출제품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자동차로 수입관세가 35%이며, 가전제품 등 일반 완제품의 경우 14-20%내외이다. 따라서 FTA 추진으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부품류, 기계류, 타이어, 직물 등의 품목에서 큰 폭으로 수출확대 가능할 것이며 반면, 망고 등의 과일류, 커피, 설탕, 대두 등의 농산물, 철광 등의 광산물 수입증가도 우려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평균실행관세율이 15%내외이며 종가세 체계의 경우 최고 35%, 종량세 부과품목의 경우 가격으로 환산시에는 종가세 최고치인 35%를 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관세가 높다. 따라서 MERCOSUR와의 FTA 체결시 대 아르헨티나 휴대폰, 타이어, 에어컨, 컴퓨터모니터 등 품목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의료용 일회용 소모품 및 약품, 불펜, 전자보안장비, 전자제품부품 등도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는 자국 경제현황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로 AD/SG남발하는 수입제한 조치, 각종 비관세장벽, 지리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여 우리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FTA 체결될 경우 관세,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우리 업체들의 대 MERCOSUR 시장접근이 용이해지고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 및 일본의 MERCOSUR 시장 확대 노력 및 MERCOSUR의 FTA 체결확대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남미시장선점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 지역간 FTA에 대한 경제 및 수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고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며, 대 MERCOSUR투자 확대, 경제협력 등을 강화하면서 양자간 요구사항 파악 및 협의를 통한 시장개방 분위기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 I. 한국-MERCOSUR 교역현황

## 1. MERCOSUR 시장특성

- 중남미 전체면적의 71%, 인구는 51%(2억2천만명), 경제규모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

【 MERCOSUR 주요 경제지표 -2003/2004년 기준】

구분	인구 (백만명)	면적 (km2)	GDP규모 (US\$십억)	총수출 (US\$백만)	총수입 (US\$백만)
브라질	176.9	8,547	493.3	96,474*	62,766*
아르헨티나	40.5*	2,780*	151.3*	34,453*	22,322*
파라과이	5.9	407	5.6	1,242	1,865
우루과이	3.4	176	11.2	2,198	2,262*
MERCOSUR 총계	226.7	11,910	661.4	134,367	89,215
칠레"	15.5	757	70.8	32,000*	22,956*
볼리비아"	9.0	1,099	7.6	1,648	1,616
페루"	27.1	1,300	11.2	8,954	8,244
준회원국포함 총계	278.3	15,066	751	176,969	122,031

자료원 : CEI

주 : 2003년 기준 자료, \*는 2004년도 통계, "는 MERCOSUR 준회원국

## 2. 대 MERCOSUR 국가별 수출입현황

- 한국의 대 MERCOSUR 교역은 중남미 지역 금융위기 이전인 '9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98-'99년 브라질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

**【 한-MERCOSUR 교역현황 】** (단위: 백만불)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2,345	2,023	1,354	1,370	2,101
수입	1,139	1,505	1,625	2,067	2,636
수지	+1,206	+518	-271	-697	-535
교역	3,484	3,528	2,979	3,437	4,737

자료원 : KOTIS

- MERCOSUR 국가별로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대 브라질 수출입이 MERCOSUR의 다른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음
  - 2004년도 대 MERCOSUR 수출은 브라질이 17억 84백만불로 전년대비 57%의 큰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출 총합의 5.6배에 달함
  - 대 MERCOSUR 수입 역시 브라질이 21억 95백만불로 2003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입의 5배에 해당

**【 대 MERCOSUR 국가별 수출 현황 】** (단위: 백만불)

	2000	2001	2002	2003	2004
브라질	1,724	1,611	1,247	1,137	1,784(57%)
아르헨티나	447	302	51	161	239(48%)
우루과이	138	78	34	44	39(-10.7%)
파라과이	35	31	21	27	38(41.3%)

자료원 : KOTIS

**【 대 MERCOSUR 국가별 수입 현황 】** (단위: 백만불)

	2000	2001	2002	2003	2004
브라질	934	1,124	1,247	1,619	2,195(36%)
아르헨티나	190	373	372	435	421(-3.3%)
우루과이	14	7.9	5	11	14(24%)
파라과이	0.3	0.4	0.5	0.9	4(423%)

자료원 : KOTIS

### 3. 대 MERCOSUR 품목별 수출입 현황

-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MERCOSUR 수출 중 97.8%가 전자전기, 화학, 기계, 섬유 등 제조업 생산품이며, 대 MERCOSUR 수입의 86.7%가 농수산물·광물, 철광제품 등 원자재임

#### 【 2004년 대 MERCOSUR 주요 수출 20대 품목 】

순위	품목	2004	2005(1-4월)	
		금액	금액	증가율
1	무선통신기기	742,622	258,531	24.7
2	전자관	187,613	74,946	33.7
3	컴퓨터	143,323	56,434	17.4
4	합성수지	104,113	47,364	113.4
5	영상기기	129,541	40,993	12.8
6	자동차	51,313	21,926	71.2
7	건설광산기계	25,784	15,179	169.5
8	고무제품	40,746	14,982	16.2
9	인조섬유장섬유사	52,340	13,988	-19.2
10	합성고무	13,860	12,425	611.9
11	유리제품	34,432	12,023	25.7
12	인조장섬유직물	47,798	11,654	-21.3
13	기타직물	20,265	11,348	83.7
14	플라스틱제품	35,611	11,164	9.7
15	자동차부품	20,728	10,280	110.5
16	편직물	22,289	8,466	29.9
17	음향기기	33,032	7,195	-34.4
18	인조섬유	14,576	6,715	90.3
19	농약 및 의약품	19,835	6,677	-3.5
20	전자응용기기	13,327	6,083	83.8
total		2,101,734	766,995	31.0

단위 : MTI 3단위기준, 천불

자료원: KOTIS

【 2004년 대 MERCOSUR 주요 수입 20대 품목 】

순위	품목	2004	2005(1-4월)	
		금액	금액	증가율
1	철광	495,081	184,515	16.2
2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290,203	147,053	50.6
3	식물성 물질	410,558	114,005	88.1
4	원유	191,608	79,392	-9.2
5	곡실류	328,980	48,394	-10.0
6	동광	119,828	41,168	-5.5
7	기호식품	121,502	37,422	-14.0
8	제지원료	75,331	25,441	2.8
9	가죽	33,585	15,825	113.9
10	기타농산물	32,050	12,209	9.0
11	알루미늄	38,924	11,198	26.5
12	선재봉강 및 철근	18,976	10,604	108.8
13	축산가공품	13,562	9,969	696.6
14	철강관 및 철강선	17,531	9,106	256.5
15	합금철선철 및 고철	62,994	8,508	-69.8
16	기타석유화학제품	12,962	6,593	237.4
17	석유화학중간원료	22,911	6,520	368.8
18	어류	14,083	5,218	4.6
19	정밀화학원료	9,229	4,546	41.4
20	축산부산물	4,921	3,756	152.3
	total	2,636,365	811,910	3.7

## II. MERCOSUR의 FTA 추진현황

### 1. MERCOSUR 개황

#### 가. 회원국 현황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준회원국 : 칠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 준회원국은 MERCOSUR의 공동관세 의무를 지지는 않으나, FTA를 통한 특별관세 혜택 향유

#### 나. 설립연혁

연도	조약 또는 선언명	주요내용
1985.11	이구아수 의정서	- 양국 지역통합과정 가속화 의지확인 - 양국 고위급 공동위원회 창설
1986.7	경제통합의정서(경제협력통합프로그램)서명	- '점진적, 유연적, 균형적'인 성격의 경제협력통합프로그램 설정 - 산업분야별로 완만한 통합전략 채택
1988.11	통합협력발전조약 체결	- 1단계로 최대 10년 내에 경제공동체 구성 합의 - 통화, 재정, 외환정책 조정 및 관세, 무역, 농업, 산업, 운송, 통신정책 조화 모색 -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회원 가입 개방 원칙 채택
1990.7	부에노스아이레스 의정서서명	- 1994.12 양국간 공동시장 창설 합의 -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방안 설정 - '90년 8월 우루과이, 파라과이 참여 결정
1991.3	아순시온 조약 서명(남미공동시장창설조약)	- 과도이행기간(1991-1994)설정 - 전문, 6장 24조 5개 부속서로 구성
1991.12	브라질리아 의정서 서명	- 분쟁해결관련 의정서
1994.12	오우루 뿌레뚜 의정서	- 국제법상 법인격 부여 - 1995년부터 발효될 대외공동관세 채택

	(기구조직관련) 서명	
1995.1	Mercosur 관세동맹으로 공식출범	- 불완전한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 으로 출발
1996.10	칠레 준회원국 가입	
1997.3	볼리비아 준회원국 가입	
2003.12	페루 준회원국 가입	
2003.12	안데스공동체(CAN)와 경제보완협정 서명	
2004.12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준회원국 가입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다. 주요 특징

- 초국가적 기구가 아닌 정부간 기구체제, 불완전한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으로 출범하여 완전한 관세동맹 지향, 회원국간 경제력 불균형 및 패권적 지역주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 성격 : 불완전한 관세동맹(2004년도 역내교역비중 약 13%)
- 품목 95% 무관세 자유무역 실시
  - 설탕, 자동차, 자유무역지역 생산품 제외
- 2004년 기준 대외공동관세 적용 품목 비중은 70% 정도

#### ※ 브라 정부의 MERCOSUR 정책

- 주요 경제권 또는 전략 국가들과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관세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적극 추진
- 페르난도 엔리케 정부가 추진해온 MERCOSUR의 공고화, 남미공동시장창설(안데스공동체포함), FTAA 및 MERCOSUR - EU FTA

연계 창설 추진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MERCOSUR 재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협력 강화 및 MERCOSUR 재건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 라. 추진배경

- 유럽통합 심화, NAFTA 출범, ASEAN 통합심화 등 지역주의화 대두
- 냉전 후 구 공산권의 세계경제 편입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벌여오던 자본유치 경쟁 격화
- 대내 지향적 수입대체화 전략을 대외 지향적 수출전략으로 전환
- 종래의 중남미 경제통합 노력 등을 배경으로 남미 4개국간 EU형 공동시장 출범 추진, 2006년까지 관세동맹 완료를 목표로 함

## 마. 대외공동관세(CET) 주요 내용

### □ 도입경과

- 1991년 아순시온 조약에서 CET 도입규정
- 1995년 CET 도입
  - 부가가치 기준으로 0-12%까지 11단계의 공동관세 설정
  -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장비(ICT,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설탕 및 자동차분야, 개별국가들의 민감 품목, 중남미 국가들과의 특혜적용품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인정

- 199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제위기로 CET 예외확대  
예) 2001년 아르헨티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을 35%로 인상
- 2004.12월 CET 이중 부과방지, 관세수입 분배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기로 합의
- 현재 MERCOSUR의 CET 코드는 총 10,759개, 평균관세율은 10.76%

#### 바. MERCOSUR 역내 교역동향

- 2004년도 MERCOSUR 역내국간의 교역은 17,192 백만불로 MERCOSUR의 대 세계 수출의 12.7%를 차지
- MERCOSUR 역내 교역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 하락세를 거듭하다 2003년부터 상승 중

#### 【 MERCOSUR 역내수출비중추이 】

연도	국가명	브라질	아르헨	파라과이	우루과이	소계	전세계	비중
2000	브라질	-	6,233	832	669	7,733	55,086	14.0
	아르헨	6,990	-	592	808	8,391	26,341	31.9
	파라과이	337	94	-	123	553	869	63.6
	우루과이	530	410	82	-	1,022	2,290	44.6
	MERCOSUR소계						17,699	84,586
2001	브라질	-	5,002	720	641	6,364	58,223	10.9
	아르헨	6,272	-	487	733	7,492	26,610	28.2
	파라과이	278	61	-	180	519	990	52.4
	우루과이	441	316	83	-	840	2,058	40.8
	MERCOSUR소계						15,512	87,881
2002	브라질	-	2,342	558	410	3,311	60,362	5.5
	아르헨	4,736	-	335	519	5,590	25,347	22.1
	파라과이	353	35	-	165	553	951	58.2
	우루과이	432	113	62	-	607	1,861	32.6
	MERCOSUR소계						10,061	88,521
2003	브라질	-	4,561	707	404	5,672	73,084	7.8
	아르헨	4,605	-	421	525	5,551	29,376	18.9
	파라과이	425	66	-	243	734	1,242	59.1

	우루과이	471	155	48	-	674	2,198	30.7
	MERCOSUR소계					12,631	105,900	11.9
2004	브라질	-	7,373	872	667	8,912	96,475	9.2
	아르헨	5,479	-	489	680	6,649	34,453	19.3
	파라과이	312	102	-	451	865	1,626	53.2
	우루과이	484	223	59	-	766	2,918	26.3
	MERCOSUR소계					17,192	135,472	12.7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CEI

단위 : 백만불, %

## 2. MERCOSUR의 FTA 추진동향 및 추진정책

### 가. 각국과의 FTA 체결현황

#### 【 MERCOSUR의 FTA 추진동향 】

구분	협정내용	발효시기
기체결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1.11.29
	MERCOSUR-칠레 준회원국협정	1996.10.1
	MERCOSUR-볼리비아 준회원국협정	1997.2.28
	MERCOSUR-페루 준회원국 협정	2003.8.25
	브라질-멕시코 특혜관세협정	2003.5.2
	MERCOSUR-안데안 FTA	2004.10
협상중	MERCOSUR-EU FTA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MERCOSUR-인도 PTA	'05.3 부속서 서명, 비준 대기중
	MERCOSUR-SACU PTA	'04.12 협정본문 서명, 부속서 협의중
추진중	MERCOSUR-중국 특혜관세협정	
	MERCOSUR-CARICOM FTA	
	MERCOSUR-GCC FTA	
	MERCOSUR-러시아 FTA	
	MERCOSUR-한국 FTA	'05. 5월 공동연구 개시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나. MERCOSUR의 FTA 확대에 따른 영향

### □ FTAA

- 쿠바를 제외한 전 미주국가 34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미주자유무역지대는 출범시 인구 8억, GDP 12조 달러, 교역량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 출현 기대
- 추진현황
  - '94년 제 1차 미주정상회의(마이애미)에서 FTAA 추진에 합의
  - '98년 협상 개시 이후 농업보조금, 지적재산권, 시장접근 등에 대한 미국과 브라질 간 의견 대립양상 지속됨
  - 미국-브라질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경제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브라질 또한 북미시장접근을 통한 이익이 클 것이므로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
  - 당분간 미국은 NAFTA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중미, 안데스 국가들과 FTA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브라질은 SAFTA를 강화하고 EU, CARICOM 등과 FTA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역외국가 차별로 인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에서 광범위한 무역전환 현상 초래 전망
  - 우리의 대 미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 MERCOSUR-EU FTA

- 추진배경

- FTAA 등을 추진하는 미국의 중남미에서의 주도권 견제 및 전통적 교역 파트너로서의 EU와의 관계 강화
- 장애요인
  - EU의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가 주요 쟁점사항
- 향후 전망 및 영향
  - 기존 협정과는 달리 선진국에 제조업 및 서비스,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게 됨으로써 한-MERCOSUR FTA 등 여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
  - 양 경제 블럭간 FTA 타결시 자동차와 휴대폰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MERCOSUR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 MERCOSUR-안데스공동체 FTA

- 추진현황
  - MERCOSUR-ANCOM 자유무역협정안 서명('98.4)
  - 브라질-ANCOM 회원국간 특혜관세협정 서명('99.7)
  - MERCOSUR-ANCOM 자유무역협상 재재 합의('99.10)
  - 2004. 10월 MERCOSUR-ANCOM 간 경제보완협정 완료
- 향후 전망 및 영향
  - MERCOSUR-안데스공동체간 교역량이 미미해 단시일 내 통합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
  -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기계류 등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3. 한-MERCOSUR FTA 추진배경 및 향후 일정

####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04년 한-MERCOSUR 간 교역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방안 논의진행
- 2004. 11월 우리 대통령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문시 한-MERCOSUR 무역협정(TA)타당성 공동연구 개시 선언

#### 나. 향후 추진일정

- 2005. 5.4-5간 파라과이에서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 2006년까지 4-5차례의 공동연구 회의 개최 후 양측 정부에 보고서 제출
- 2006년 하반기 FTA 협상 개시
- 2007년 하반기 FTA 교섭완료

### Ⅲ. MERCOSUR 지역 관세현황

#### 1. 브라질의 관세율 현황

##### 가. 브라질의 관세율 구조

###### □ 관세율 구조 개요

- 메르코수르 대외공동관세(TEC)사용
  - 브라질은 정보통신제품과 일반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메르코수르 대외공동관세(TEC)를 사용함(NCM코드)
  - 예외품목 중 정보통신 제품의 경우 2006년 1월 대외공동관세로 수렴 계획
  - 메르코수르 대외공동관세는 0%-20%이며 예외품목의 경우 35%까지 다양함
- 현지생산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율 적용
  -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정보통신제품, 전기전자 등 완제품의 경우 14-35%의 고관세율 적용
  - 반면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첨단제품, 자본재 등의 경우 영세율 또는 저세율 적용(인플레이 억제 또는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 평균관세율 : 14%

###### □ 산업별 관세율

산업	관세율(%)
농산물	0-14%(예외:NCM Code 1006.30.11의 경우 18%)
수산물	0-16%
석유	0-4%
광물	0-6%

목재 및 펄프	2-14%
섬유 및 의류	2-20%
가죽/고무 및 신발류	2-20%(예외: NCM Code 4012.11.00의 경우 35%)
금속	0-20%
화학제품	2-28%
수송기계	2-35%
기계	0-20%
전자	0-20%

#### □ 관세율 구조

관세종류	브라질('04년)	
	품목수	비중(%)
종가세	9,706	100%
비종가세(종량세 및 선택관세)	-	-
전체	9,706	100%

#### 나. 브라질의 고관세 품목

##### □ 개요

-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제품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자동차로 수입관세가 35%임
- 가전제품 등 일반 완제품의 경우 14-20%(예외 품목 제외)

#### 다. 주종 수출품목의 FTA 효과

##### □ FTA 추진시 우리나라의 수출확대 가능분야

분야	사유
전기전자제품	- 브라질의 전기전자제품 시장은 주로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p>순수 브라질 기업들의 경쟁력 열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제품, 가전제품, 전자부품 등의 수출확대 가능</li> <li>- FTAA, MERCOSUR-EU FTA 체결시 한국산 진출 어려움 다대 예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수입관세가 35%로 역외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불리</li> <li>- 우리나라의 자동차 현지투자 전무</li> <li>- FTAA 체결시 미국산 자동차 시장확대로 시장상실 우려</li> <li>- 현지투자진출과 함께 FTA 추진 필요</li> </ul>
석유화학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의 석유화학제품 경쟁력 열위</li> <li>- FTA 체결시 수출확대 가능</li> <li>- FTAA, MERCOSUR-EU FTA 체결시 한국산 진출 어려움 다대</li> </ul>
부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의 부품산업 열위</li> <li>- FTA 체결시 수출확대 가능</li> <li>- 전기전자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중소부품업체 현지투자 확대 필요</li> </ul>
기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체결시 수출확대 가능</li> <li>- FTAA, MERCOSUR-EU FTA 체결시 한국산 진출 어려움 다수</li> </ul>
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현지 타이어 투자진출 전무</li> <li>- FTAA 체결시 시장상실 우려</li> </ul>
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한국산 직물은 저가의 중국 및 동남아산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FTA 체결시 가격경쟁력 제고로 시장확대 가능</li> </ul>

#### 라. 대 브라질 수입증가 예상품목

- 과일류(망고 등), 축산물(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산물(대두, 옥수수, 설탕, 알콜, 커피 등), 광산물(철광석, 알루미늄 등), 경공업 제품(신발 등) 등

#### 마. FTA 미추진으로 인한 수출 영향 품목

품목	관련 FTA 및 주요 경쟁국
자동차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멕시코 특혜 관세협정(멕시코)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멕시코) * MERCOSUR-EU FTA(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자동차 부품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멕시코 특혜 관세협정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멕시코) * MERCOSUR-EU FTA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식물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멕시코 특혜 관세협정(멕시코) * 미주자유무역지대(멕시코, 과테말라)
IT제품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 MERCOSUR-EU FTA(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기계류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 MERCOSUR-EU FTA(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주 : \*는 협상중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2. 아르헨티나의 관세율 현황

### 가. 아르헨티나의 관세율 구조

#### 관세율 수준 개요

- 평균실행관세율 : 15% 내외(관세율 조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음)
- 종가세 체계의 경우 최고 35%, 최저 0%
- 종량세 부과품목의 경우 가격으로 환산시 종가세 최고치 35%를 넘는 경우도 발생

#### 산업별 관세율

산업	관세율(%)
농산물	0-10%
수산물	10%
석유	0-4%
광물	0-4%
목재 및 펄프	2-16%
섬유 및 의류	2-20%(일부 종량세 및 쿼터 적용)
가죽/고무/플라스틱/신발류	-가죽 : 2-20% - 고무 : 4-16% - 플라스틱 : 2-18% - 신발류 : 18-20%(일부 종량세 및 쿼터 적용)
금속	4-18%(일부 종량세 적용)
화학제품	0-14%
수송기계	32-35%
기계	0-20%
전자	12-20%
평균	15% 내외

자료원 : IARA를 기초로 MOL, Infojust, CNCE 등 자료 종합

#### □ 관세율 구조

관세종류	아르헨티나('04년)	
	품목수(개산치)	비중(%)
종가세	약 26,600	95%
종량세*	약 1,400	5%
전체	28,000	100%

자료원 : CNCE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에 의하면 종량세 부과 품목은 전체 품목의 5% 수준이며,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됨

- 불공정 경쟁 : 덤핑, 정부 보조금
- 민감 품목 : 국가 발전에 핵심이 되는 산업 분야의 제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용

#### □ 관세율(종가세) 분포

관세율	아르헨티나('04)	
	품목수*	비중
0%	2,000	7
5%-10% 미만	2,800	10
10-15% 미만	7,000	25
15%- 20% 미만	8,400	30
20%-25% 미만	5,600	20
25%-30% 미만	1,400	5
30%-35% 미만	600	2
35%-100% 미만	250	1
100% 이상	-	-
합계	2,8000	100%

자료원 : IARA를 기초로 MOL, Infojust, CNCE 등 자료 종합

\* 품목수는 근사치임

- 평균관세율은 정확한 통계치가 없으며,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MERCOSUR online, America Edita 등을 접촉한 바에 의하면 MERCOSUR 역외국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보통 15%내외이나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16%까지 보고 있음

#### 나. 아르헨티나의 고관세 품목

※ 대 아르헨티나 수출실적('04년 기준) 백만불 이상 품목의 관세율 대상

#### □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 분포

	품목수	비중(%)	수출액(US\$)	비중
무관세	4	9%	7,203,748	4%
0-5%	2	4.5%	2,832,178	1.5%
5%-10%	5	11.3%	12,635,889	7%
10%-15%	11	25%	40,464,108	22.7%
15%-20%	19	43.1%	106,973,233	60.2%
20%초과	3	6.9%	7,472,083	4.2%
소계	44	100%	177,596,326	100%

자료원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 관세율 5% 이상 적용받는 품목의 분류

품목	수출액(백만불)	관세율5-10%품목수	관세10%이상품목수
농산물	-	-	-
광물	-	-	-
화학	-	-	-
플라스틱, 고무, 가죽	34.6	-	7
섬유류	22.7	1	7
생활용품	2.5	-	1
금속	2.2	2	-
수송기계	10.3	-	5
일반기계	1.5	-	1
전자제품	90.3	2	11

□ 관세율 5-10 % 적용 품목

품목	HS Code	수출액(US\$)
수신기 부분품	852990	4,506,152
기억장치	847170	4,100,514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강력사	590220	1,851,725
기타 페로망간	720219	1,120,801
페로망간(탄소함유량이 2%초과)	720211	1,034,591

□ 고관세(10 %초과) 적용 품목

품목	HS Code	수출액(US\$)
칼라 TV	852812	25,494,73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0	20,004,928
휴대폰	852520	17,378,215
에어콘	841510	9,427,978
에어콘 부품	841590	7,338,151
버스, 트럭용 타이어	401120	6,805,104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	540761	6,778,383
음성재생기기, 음성기록기, 영상기록용	852290	5,829,580

또는 재생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		
CRT 텔레비전	854011	5,738,698
가정용 전열기기	851690	5,026,715
폴리에스테르장 섬유외 강력사	540220	4,509,146
폴리에스테르장 섬유외 기타 단사	540243	3,790,389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2500이하	870332	3,594,727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51650	3,192,989
승용자동차의 고무제 이너튜브	401310	2,677,290
기타 복사지 또는 전사지	480990	2,500,418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2500cc초과	870333	2,271,796
이소시아네이트	292910	1,932,314
기타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40769	1,880,125
승용자동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	401110	1,720,134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847160	1,698,608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99	1,639,742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3000cc	870324	1,605,560
염색직물	540752	1,500,938
도로공사기계	842952	1,500,000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9	1,268,572
폴리우레탄을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590320	1,234,844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 의 부분품	840999	1,181,901
합성장섬유의 기타 단사	540249	1,166,947
천연색의 영상 모니터	852821	1,099,953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	390120	1,060,892
가타 통신기기	851780	1,034,591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	390110	1,025,681

#### 다. 주종 수출품목의 FTA 효과

##### 휴대폰

- 2004년 아르헨티나의 휴대폰 수입시장 규모는 6억불로서 이 중 52%가 멕시코(3억 800만) 및 브라질(2억 1900만)산이 장

악. 한국산은 3천만불로 3위. FTA체결시 현재 한국산에 적용되는 17%의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멕시코 및 브라질산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어 시장점유율의 대폭적인 확대를 기할 수 있음

## □ 타이어

- 아르헨티나의 타이어 시장은 내국산과 수입산이 현존함. FATE, GOODYEAR 같은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과 수입을 겸하고 있으며, 수입 및 유통전문 업체들도 다수 있음. 타이어 수입시장 규모 2억 500만불 중 브라질이 1억 1700만불로 수입시장의 57%를 장악하고 있음. 그 뒤로 중국이 1500만불(7.3%), 일본이 1100만불(5.7%), 그리고 한국이 790만불로 시장의 3.8%를 차지함. 한국과 중국, 일본은 브라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16%의 관세를 내고 있는데, 한국이 MERCOSUR와 FTA를 체결하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가정용 에어컨

- 에어컨은 2002년의 평가절하 이후 큰 상승폭을 보인 제품 중 하나로, 2004년 수입시장은 7100만불 규모임. 브라질이 2800만불로 시장의 39%를 점유하고 있고 그 뒤를 태국이 2100만불로 29%, 중국이 950만불로 13%, 한국이 740만불로 약 10%를 점유하고 있음
- 한국은 에어컨 완제품 외에도 에어컨 부품도 상당량 수출하고 있음. FTA 체결 후 현재 적용받고 있는 18%의 관세가 하향조정되면 브라질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지 시장

에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 컴퓨터 모니터

- IT 산업이 경제 위기 이후 인터넷과 컴퓨터, 부품 및 악세서리 등을 중심으로 활황을 띄고 있음. 컴퓨터 모니터 수입 시장 규모는 8600만불임
-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중국(US\$ 2850만, 33.9%), 브라질(US\$2540만, 29.4%) 및 Manaus 자유무역지대(US\$2390만, 27.6%), 멕시코 (US\$ 390만, 4.6%)등이 있으며, 한국은 53만불로 0.6%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과 Manaus 자유무역지대에서부터 들어오는 제품들은 MERCOSUR 회원국으로서 11%의 관세를 내지 않고 있음

#### 라. 기타 수출증가 예상 품목

- 아르헨티나의 섬유직물 및 의류산업이나 철강산업 등은 업계의 로비가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FTA 협상시 양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 분야 제품들은 FTA 협정으로 상당한 수입증가가 예상됨

#### □ 의료용 일회용 소모품 및 약품

- 일회용 의료용품은 수입시장 규모가 6백만불이며, 무관세 혜택을 받는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많지 않음. 한국은 90년대 상당폭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약화로 점차 시장을 상실해가고 있음. 관세: 16%

## □ 볼펜

- 중국, 독일, 이태리, 일본, 브라질 등의 국가로부터 1800만불을 수입함.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0만불이나 무관세 혜택을 받게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전망. 중국과 브라질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고가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FTA로 우리 제품이 품질 및 가격경쟁력 모두를 보유함으로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관세 : 18%

## □ 전자 보안장비(CCTV, DVR)

- 아르헨티나의 치안부재 심화로 인해 전자 보안 장비가 최근 3년동안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하지만 가격이 중국제품에 비해 너무 높고 일본, 미국 제품의 가격과 비슷해, FTA 효과가 크게 빛을 보게 될 분야로 꼽힘. 관세: 20%

## □ 전자제품 부품

- 칼라 TV, 에어컨, DVD 및 VCR 등 현지에서 조립 가능한 제품들의 부품 수출 확대 가능. 현재 우리나라가 동 품목들을 수출중이나 FTA로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되면 시장점유율 대폭 확대 가능성이 높음. 관세: 14-18%

#### IV. MERCOSUR 비관세장벽

##### 1. 수입규제 현황('05.4.14 기준)

□ 브라질: 총 1건 (AD 1건)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치내용
나일론 6번사	5402.31	반덤핑	'00.1.12	'01.6.28	반덤핑관세 (5.2% ~ 52.2%)

□ 아르헨티나: 총 6건 (AD 6건)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냉연강판(CRS)	반덤핑	'01.7.19	'02.4.30	'03.1.8	반덤핑 관세부과 (60.46%)
아연철판 (Galvanized Steel Sheet)	반덤핑	'02.5.30	'02.12.16	'03.5.23	반덤핑 관세부과 (49.67%)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01.5.21	'01.11.8	'02.11.12	반덤핑 관세부과 (US\$0.85/kg)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반덤핑	'99.12.2	'00.11.23	'01.8.7	반덤핑 관세부과 (US\$8.73/kg)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반덤핑	'04.2.23	-	-	예비조사과정은 '04.6.23일경 종료 되었으며 예판결 과를 기다리고 있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반덤핑	'04.12.22	-	-	-

## 2. 비관세장벽 현황

### 가. 브라질

유형	내용
통관절차	- 복잡한 통관절차 때문에 통관대리인을 선정, 대행케 하는 것이 관행 - 통관검사의 강화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행 - 통관지연 및 적기출하 실패
정부조달	-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의 조달은 브라질 내 투자기업이외에는 시장접근이 어려움
투자장벽	- 운송업 공공유틸리티, 미디어 및 기타 전략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상존 - 국내기업 우대법규의 불투명성, 행정의 비효율성, 사회 간접 자본 낙후, 근로자 권익보호에 편중된 노동법규 등 투자에 상당한 애로 및 장벽 존재
환경규제	- 공업이 발달한 남부지역 공업지대에서는 시, 주 등을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 부과 등 환경오염 엄격히 통제
기타	-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주채원 장기 체류사증 취득 절차가 복잡

자료원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 나. 아르헨티나

유형	내용
통관절차	- Canal Morado(적갈색: 좀더 세밀한 서류 및 물품 검사) 통관규제로 인해 장시간 소요 및 수입업자의 자금부담 가중
반덤핑·상계관세	- 주채국 정치 및 경제 사정에 따라 AD/SG 남발하는 경향이 있음
정부조달	- IDB 회원국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었으나

	올해 한국의 IDB 가입으로 시장진출 확대가 가능해짐
기술인증	- IRAM 규격 인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수출업체 애로
기타	- 주재국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므로 우리 진출 기업의 지상사 직원 및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이중부담이 되고 있음

자료원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 V. 결론

### 1. 체결 필요성

- 거대 신흥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안정적 원자재 공급원으로서의 기반 마련
  - MERCOSUR는 중남미 전체 면적, 인구, 경제규모 등에 있어 중남미 최대 규모의 경제 통합체이며 각종 자원의 보고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큼
  
- MERCOSUR의 FTA 체결 확대 움직임에 대응
  - MERCOSUR는 남미시장통합 외에도 FTAA, EU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남아공 등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
  - 따라서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남미시장 상실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선점 필요
  
- MERCOSUR 고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로 인한 우리 업체들의 대 MERCOSUR 진출 애로사항 해소 및 수출증대 도모
  - 우리의 대 MERCOSUR 20대 수출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13.4%로 그리 높지 않으나 MERCOSUR가 경사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 관세율은 높음
  
- ※ 경사관세제도(Tariff Escalation) : 상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 자동차와 같이 제조 공정이 많은 상품은 관세율이 높고 원자재에 가까울수록 관세율이 낮아짐
  
- 브라질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부품류, 기계류, 타이어, 직물 등의 품목에서 수출증가가 기대됨

-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35%로 역외국산 자동차 가격경쟁이 불리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현지 투자가 전무하여 현지투자진출과 함께 FTA 추진이 필요한 실정
- 아르헨티나의 경우, 주종 수출품목인 휴대폰, 타이어, 가정용 에어컨, 컴퓨터 모니터 등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이 기대되며 기타 의료용 일회용 소모품 및 약품, 불펜, 전자보안장비, 전자제품 부품 등에서도 FTA 체결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
- 또한, MERCOSUR에서는 자국의 경제현황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로 AD/SG를 남발하는 수입제한 조치, 각종 비관세장벽,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여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FTA로 각종 애로사항이 해소된다면 대 MERCOSUR 시장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임
- 중국 및 일본의 MERCOSUR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응
  -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브라질을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와 자원개발을 위한 전략기지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MERCOSUR 시장 확대중
  - 브라질시장에서 중국과는 휴대폰, 에어컨, 직물, 석유화학제품, 타이어, 완구 등이 경쟁 중
  - 또한, 일본 역시 최근 중국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급성장과 한국의 약진에 영향을 받아 브라질에 대한 투자 및 수출확대 적극 모색중
- FTA 체결시 대 MERCOSUR 수출확대 효과 커
  - 우리나라의 대 MERCOSUR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직물, 자동차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브라질 경기침체 시 수출급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수출비

중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한-MERCOSUR FTA 체결시 수출환경이 대폭 개선됨으로써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대 MERCOSUR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

## 2. 대응방안

- MERCOSUR 국가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시장접근 확대 및 MERCOSUR 와의 FTA 미체결로 인한 각종 애로 사항을 막기 위해 한-MERCOSUR 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체결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양 지역간 FTA에 대한 경제적, 수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철저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 충분히 거쳐야 할 것
- 또한, 양자간 요구사항 파악 및 협의를 통한 시장개방 분위기 제고
  - MERCOSUR의 FTA확대 목적은 남미시장통합 외에도 농축산물, 자동차, 신발 등의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함
  -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파트너들이 쿼터 또는 수입금지로 제한하고 있어 FTA 또는 PTA 등을 통해 수출확대 추진중
  - 따라서 상호 관심품목 또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FTA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상호인식제고 필요
- 대 MERCOSUR 투자의 양적 질적 확대와 함께 지역별 계층별 시장 세분화 필요
  -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MERCOSUR 확대 및 FTAA 창설

에 대비하여 현지 투자 확대 필요

- 특히, 브라질 시장에 아직까지 현지투자가 전무한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석유화학분야 등에 대한 현지투자 검토 필요
- 아울러 2005.3월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계기로 중남미 조달시장 본격 진출의 길이 열려 대 MERCOSUR 투자활성화의 기반 구축됨

○ 한-MERCOSUR 경제협력 강화

- 한-브라질 양국은 경제적으로 보완관계 측면이 강해 상호협력 가능분야가 많음. 최근 브라질 산업계의 중국 경제력 강화 추세에 따라 한국과 전략적 제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MERCOSUR와 우리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및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구체적으로는 대표단 파견, 세미나 및 상담회, 전시회 등의 현지 마케팅 활동 강화 필요